

Market Briefing

Analyst 김형렬
3771-9175
Jeff2000@iprove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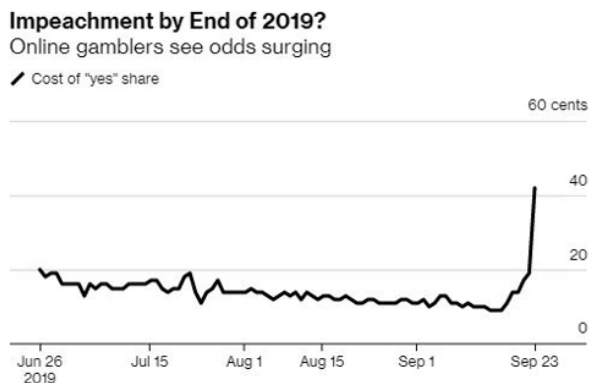
트럼프 탄핵 이슈, 대선 정국은 오리무중으로

단기적으로는 투자センチ먼트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상존

24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착수했다. 탄핵 조사 이유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그의 아들을 조사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에도 쉽사리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현지시간 기준, 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기준 트럼프 탄핵 확률은 42%로 치솟았고, 하원 탄핵안 가결정족수 218명 중 200명의 탄핵 지지를 받은 상황이다. 물론 하원에서 가결 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탄핵안 상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반기업적 성향 민주당 대선 후보)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구도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대선 정국은 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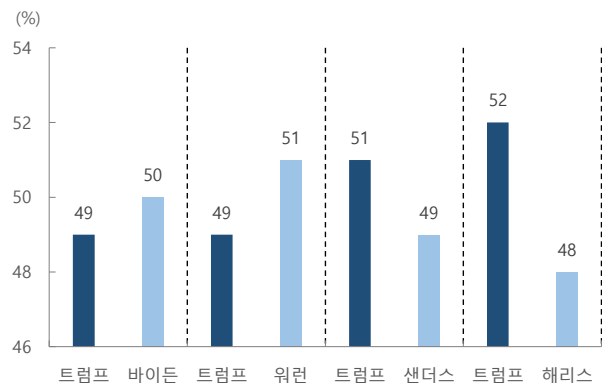
금번 트럼프의 탄핵 이슈는 단기적으로 투자センチ먼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트럼프가 국내 정치 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아 미중 무역분쟁, 북미 관계 문제 등이 장기화될 가능성, 2)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트럼프 재선 실패 → 엘리자베스 워런 당선 시나리오로 흘러가 반기업적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이슈가 장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거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증대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는 조정 후 낙폭을 전부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표 1] 트럼프 대통령 탄핵 확률(정치 온라인 베팅 사이트 기준)



자료: PredictIt,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2020 년 대선주자 가상 대결구도와 지지율(9 월 24 일자)



자료: Realclearpolitics,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미국 과거 탄핵 사례 비교

	닉슨	클린턴	트럼프
명칭	워터게이트(1972 년)	지퍼게이트(1998 년)	러시아게이트, 우크라이나 게이트
탄핵사유	사법 방해, 직권남용, 의회모독	사법 방해, 위증	사법방해 혐의 예상, 대통령 압력 행사
결과	원표결 직전 사임(74 년 8 월 9 일)	하원 통과(98 년 12 월 19 일), 상원 부결(99 년 2 월 12 일)	-
지지율	24%	73%	40%
주식 시장	사임 이후 2 개월 동안 다우 28.7% 급락	하원 표결 전 3 주 동안 8.9% 하락, 하원 표결 후 2 주 동안 11% 상승 상원 부결 결정 이후 1 분기 24% 급등	-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향후 미국 대선 레이스 일정 및 주요 이벤트

일자	이벤트	내용
2020.2.3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아이오와를 비롯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 4 개 주에서 코커스 시작 주 대의원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 대선 풍향계
2020.2.11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시작	주 대의원 선출하는 첫 예비선거로 상위 후보군 압축
2020.3.3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슈퍼화요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16 개 주에서 코커스 or 프라이머리 개최
2020.4.28	뉴욕 주 프라이머리	플로리다와 공동으로 선전인단 수 3 위 지역
2020.7.13~16	민주당 전당대회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및 최종 대선후보 지명
2020.8.24~27	공화당 전당대회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 및 최종 대선후보 지명
2020.11.3	대통령 선거	제 46 대 미국 대통령 선거
2021.1.20	대통령 취임식	제 46 대 미국 대통령 취임

자료: 언론종합, 교보증권 리서치센터